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기차 양산 체제 ‘본격화’

7월15일부터 캐스퍼 양산 돌입
올 하반기 1만7000대 생산 목표
‘D-100 점검회의·결의대회’ 개최
“최고 경쟁력·품질 기술력 확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전기차 양산 준비에 본격 나섰다.

3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몽헌 대표이사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 전기차 양산 D-100’ 점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 전 임직원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공 양산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100일 앞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전 직원들이 성공 양산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오는 7월15일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시작한다. 지난 2월5일 시험생산에 돌입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실제 판매·수출할 차량과 똑같은 과정



광주글로벌모터스는 3일 오전 윤몽헌 대표이사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 전기차 양산 D-100’ 점검 회의를 연데 이어 오후 전 임직원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공 양산을 다짐했다.

을 거쳐 차를 생산하는 등 양산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캐스퍼 전기차는 기존 캐스퍼보다 전장이 길어지고 1회 배터리 충전 시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나는 등 최고의 경쟁력과 품질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설명했다.

실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그동안 전기차 생산 기반 시설 구축에서부터 시운전, 시험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것은 물론 오는 20일 50여명이 넘는 인제가 새롭게 입사할 예정으로 자동차 생산 전문 기업으로서 우수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7일 윤몽헌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래 올 1월15일 김석봉 생산본부장, 3월22일 김대식 부사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경영진이 모두 자동차 전문가로 채워지는 등 전기차 생산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이를 바탕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반기에 2만4000대, 하반기에 2만4500대 등 올해 모두 4만85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중 하반기 생산 물량의 70%에 달하는 1만7000대를 전기차로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차 생산과 판매, 수출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현재 1교대 방식인 생산 체계를 2교대로 확대해 전체 생산량을 늘리고 지역 인재 채용도 크게 늘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윤몽헌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전기차 생산을 준비해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무결점 최고 품질의 전기를 시장에 내놓겠다”며 “이를 위해 회사 설립, 존속, 발전의 근간인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 모든 임직원이 상생 협력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보해양조 ‘완도 다시마’ 활용 소주 개발한다

완도금일수협과 특산물 활용 MOU

주류전문기업 보해양조는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보해양조 서용민 마케팅본부장,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해양조 장성공장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완도 다시마를 사용한 주류 제품 연구 및 개발 지원 △제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시장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다. 양사는 MOU를 발판 삼아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다시마는 완도의 대표 특산물로서 국내 생산량 중 70%가 완도 금일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다시마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해조류로 알려져 있다.

보해양조는 이번 업무협약 이전에도 신안 토판염을 활용한 ‘보해소주’를 출시하는 등 ‘한잔의 술에도 바다의 깊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제품 개발을 이어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주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힘써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완도금일수협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호남 지역의 ‘맛’과 ‘멋’에 어우러지는 활동으로 주류전문기업의 위상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현대자동차, 내구성 강화 ‘쏘나타 택시’ 출시

현대자동차가 국내 내연기관 중형 세단 중 유일한 택시 전용 모델 ‘쏘나타 택시’(사진)를 3일 출시했다.

쏘나타 택시는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LPG 엔진과 변속기, 타이어를 적용했으며 넓어진 2열 공간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택시의 가혹한 주행 환경을 고려해 일반 차량 대비 약 2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으며,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스마트스트립 LPG 2.0 엔진과 택시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일반 타이어 대비 약 20% 내구성이 강화된 타이어를 적용했다.

또한 쏘나타 택시는 기존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대비 휠베이스를 70mm 늘려 더 넓은 2열 공간을 바탕으로 승객에게 보다 쾌적한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쏘나타 택시의 안전 사양을 대폭 강화하고 최신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끌어올렸다.



쏘나타 택시는 △1열 에어백 △운전석 무릎 에어백 △1열·2열 사이드 에어백 △전복 대응 커튼 에어백 등이 포함된 9 에어백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LF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를 탑재하고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Software Update, Over-the-Air)를 적용해 더욱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호남 첫 수영용품 ‘멀티폴’ 오픈

스피도 등 수영복 브랜드 다양
오픈 기념 최대 20% 할인 행사

광주신세계는 수영용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멀티폴’을 호남 최초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신관 지하 1층에 오픈한 멀티폴은 스피도와 졸린 등 유명 브랜드 수영용품 전문 멀티숍이다.

먼저 ‘스피도(speedo)’는 1928년 호주에서 탄생한 글로벌 1위 수영복 브랜드로 각종 국제 수영대회에서 선수들을 후원하며 선수들은 물론 수영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또 ‘졸린’(JOLYN)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현재 미국에서 여성 수영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졸린이 미국에서 핫한 브랜드라면 호주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씨폴리’(SEAFOLLY)다. 지난 1975년 호주에서 출범한 비치웨어 전문 브랜드로 수영중심의 코어스вим(Core Swim), 패션 중심의 패션스вим(Fashion Swim), 휴양지에서 입기 좋은 패션오버스вим(Fashion Overswim) 등 세 가지 라인



광주신세계가 수영용품 전문 멀티숍 ‘멀티폴’을 호남 최초로 오픈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제품 라인 덕분에 해변이나 실내 수영장 등 각 상황에 맞는 제품을 한 자리에서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멀티폴 오픈 기념 할인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스피도는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경과 수모인 스피도 레이싱 키트를 20% 할인하는 행사를 오는 12일부터 50개 한정으로 실시한다. 졸린은 수영

복 15%, 수모 10% 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씨폴리도 오는 30일까지 전 품목 20% 할인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이정일 신관팀장은 “올해 유행할 수영복과 비치웨어를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비했다”며 “특히 수영을 좋아하는 소비자들께서는 오픈 기념 프로모션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경총,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진

매월 50인 미만 사업장 방문 지원
영세기업 산재예방·중대법 대응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5~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동안전관리자

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 대책 수립,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4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jef.or.kr) 또는 사업운영팀(062-716-3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